AT&T의 NCR매수가 우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CR이 지난달 28일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개최한 임시 연차주주총회와 병행하여 가격교섭에 대한 타협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총회에서의 임원선임에 대한 투표결과는 정식으로는 2주후에 판명되지만 그전에 양사 경영진간에 가격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8일의 총회에서는 약 400명의 주주가 출석하였다. 여기에서 AT&T가 NCR임원진 12명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을 결의하려면 전체 주주의 80%의 동의가 필요한데 AT&T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연차총회에서 AT&T는 4명의 임원을 파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과반수는 NCR측이 차지하고 있으며 AT&T가 NCR의 경영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 미국, PCS사업의 테스트신청회사가 50개를 넘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PCS)는 미국에서 그 장래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PCS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PCS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며, 작년 봄부터 FCC에 테스트 실시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1991년 2월초 현재 테스트신청건수는 이미 52건에 달하고 이중에서 약 절반가량이 실시허가를 받았다.

테스트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셀룰러전화회사, 무선통신회사등 전기통신서비스회사에다가 CATV회사나 PCS사업진출을 노리는 벤처기업등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테스트 신청이 나오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테스트에 대한 허가가 장래 PCS가 실용화되었을때 영업허가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PCS사업진출을 계획중인 업자들은 신청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FCC는 PCS가 실용화되는 것은 빠르면 1993~94년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까지 PCS 실현 방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 日 JSB, 4월 1일부터 상업방송 개시

세계최초의 위성을 이용한 민간유료방송국인 일본위성방송(JSB) 이 4월 1일부터 영업방송을 개시하였다. 수신에 필요한 디코더 부족으로 신청은 했으나 시청할 수 없는 고객이 있는 것이 조금 불만이지만 디코더 공급외에 앞으로의 프로그램 충실을 위한 동사의 노력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JSB는 우여곡절을 거친 민간위성방송서비스가 본격시동됨으로서 극장용영화, 스포츠(프로복싱, 프로레스링, 모터스포츠 등에 특히 주력), 스테이지 쇼핑등 지상계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려고 하고 있다.

JSB는 NHK의 위성방송에도 도전할 예정인데 영화는 미국 굴지의 제작자와(워너 브러더스 등) 계속 계약을 맺어 방송하는 이외에 미국의 독립계, 일본의 영화등도 아울러 방송할 예정이다. 월 2천엔의 요금은 영화만으로 충분히 만족될 것이라고 동사는 말하고 있다.

계약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 신청수가 약 20만에 달하고 있는 JSB이지만 향후전개양상이 주목되고 있다.

## 우정성 연구회, 하이비전 통신네트 이용촉진에 대한 5개 항목을 제언

우정성의 하이비전 네트워크 이용연구회는 3월 28일 하이비전 시스템에서의 통